

강진군 미래 밝힐 '2030 발전 로드맵' 나왔다

지속가능 성장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 해양생태정원·다산문화벨트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10대 선도과제 제시

10년 뒤 강진 발전의 청사진을 그린 '2030 강진 발전 로드맵'이 나왔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연구원의 '2030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4차산업 혁명,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한 강진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지난해 7월 용역에 착수해 읍·면 순회 간담회, 주민 설문조사, 강진군 부서협의회, 지역전문가 면

담,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발전계획에 담았다.
용역을 맡은 광주전남연구원은 '사람으로 활기찬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을 비전으로 4대 목표, 8대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해양생태문화정원, 다산문화벨트 조성, 중소 그린형 컨벤션센터 구축 등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10대 선도과제를 발표했다.
강진군은 발전계획의 체계적 실현을 위해 각종 정책 개발과 전략 수립 지침으로 발전계획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 발전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예산 확보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해달라"며 "발전계획에 제시된 청사진을 군민과 함께 실현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더불어 행복한 강진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은 지난 4일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강진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화순군 산불 예방 총력전

주말·휴일에도 비상근무

화순군이 주말·휴일 동안에도 이동 순찰 등 비상근무를 하며 산불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산림청이 최근 10년(2010~2019)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한 결과, 봄에 일어난 산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산불은 1년 평균 440건이 발생하는데 이 중 봄(3~5월)이 254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이어 겨울(12~2월) 103건(23%), 여름(6~8월) 48건(11%), 가을(9~11월) 35건(8%)이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152건(35%)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71건·16%)과 쓰레기 태우기(62건·14%) 등 소각 산불이 30%를 차지했다. 자연 발화나 아닌 사람의 부주의가 원인인 것이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도 가장 높다.
이에 화순군은 예방은 물론 캠페인 등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국도변 터널 37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전체 가구(2만6200)에 안내문을 보내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예방 동참을 유도했다.

또 300개 마을에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서약을 받아 '주민참여형 예방 활동'을 벌였다. 산불의 주요 원인인 산림 인근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과 생활폐기물 태우기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최형철 화순군 부군수는 "화순은 전체 면적의 73.2%가 산림으로 방심하면 산불로 한 순간에 산림자원,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며 "예방·예찰에 공직자와 관계기관뿐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옛 나주극장,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1930년대 지역 최초 개관 문체부 문화재생 연구 대상지 공모 선정

일제 강점기에 개관해 60여년을 지역민과 함께 해왔던 옛 나주극장이 문화재생공간으로 재탄생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옛 나주극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류공간 문화 재생 연구 대상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화 재생사업은 유류공간으로 방치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등을 문화적 환경을 갖춘 장소로 재창조하는 등 도시 재생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문화 프로젝트다.

나주지역 최초 극장인 옛 나주극장(금성동14-1)은 1930년대 당시 나주천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하천부지에 소주공장, 잡사(누에)공장 등 산업시설과 함께 들어섰다.
1990년 극장 문을 닫기까지 정치·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자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대표적 근대문화시설이다.
2층 현대식 석조건물로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나주시는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옛 나주극장 주변 기초현황과 환경 분석, 옛 나주극장 현황 분석 및 문화 재생방안 수립,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과 단계별 추진 방향, 문화재생 추진 기대효



1980년대 나주극장(왼쪽)과 현재 모습.(나주시 제공)



과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도 옛 도읍지인 나주시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유산 활용사업 등을 연계해 나주 읍성권을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그동안 빈 곳으로 남아있던 옛 나주극장이 나주정미소, 나주잡사 등에 이어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문화 재생 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동화나라에 온듯...장성 황룡강 '힐링허브정원'

이 든다. 힐링허브정원에서는 아름답게 조성된 메리골드, 라벤더, 한련화 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은은하고 달콤한 애플민트, 체리세이지의 향기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다.

장성 황룡강 힐링허브정원에 들어서면 마치 요정 마을에 놀러온 것 같은 기분
<장성군 제공>

담양군 벼 신품종 개발 박차

우수한 1계통 선발 지역적응시험 지역 명품쌀 브랜드 가치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6차산업 활성화 기여

담양군이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벼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담양군에 따르면 경쟁력 갖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국립식량과학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담양지역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벼 품종개발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수행한 실증시험 결과 외관 및 성분, 품위, 식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중 가

장 우수한 1계통(담양1호)을 최종 선발해 지난 해부터 4개 지역(담양, 나주, 전주, 익산)에서 지역적응시험을 하고 있다.
올해도 우수한 1계통(담양2호)을 선발해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가 좋을 경우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계획이다.
이병창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담양만의 맞춤형 벼 신품종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 명품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6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쌀 이외에도 죽향·메리퀸 등 자체 개발한 딸기 신품종을 통해 '담양딸기 세계화'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블루베리, 멜론 등 품종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나주시 26일까지 농협서 접수

나주시는 7일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폭염,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작물을 보상하는 것으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다.
작물별 보험 가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전에 가입 시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벼 재해보험은 오는 26일까지 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새·짐승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 등 병충해 피해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료의 절반은 정부가 부담하고, 전남도·나주시가 30%, 농가는 20%를 부담한다.
지난해 4882농가(7만4826ha)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태풍 '링링'과 '타파' 등으로 피해를 본 3977농가가 86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